

지 회 전 화 번 호

서울 (02) 743-1937 부산 (051) 523-6023
 경기 (0333) 655-5233 강원 (0371) 44-1415
 충북 (0431) 223-7832 충남 (0417) 61-2215
 전북 (0652) 231-0824 전남 (062) 522-5768
 경북 (053) 422-7867 경남 (0551) 42-6573
 제주 (064) 22-6907 인천 (032) 762-7797
 대전 (042) 636-9896

양봉협회보

200호
 1997년 4월 25일
 월간 <비매품>

발행인:정해운/ 편집인:김충겸/ 인쇄인:양광호/ 발행처:(사)한국양봉협회 ☎110-1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73 삼보빌딩 301호 전화(02)763-1372·5903·FAX:764-1297

제25회 양봉의 날 기념행사 대성황

「아카시나무의 개발과 이용」 심포지움 병행

제25회 양봉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4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경북대학교 전자계산소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8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한국아카시나무연구회 정기총회 및 『아카시나무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심포지움 행사에 이어 오후 제 2부 행사로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 양봉산업의 주요 자원인 아카시나무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경제적인 생산성에 대해 우리 양봉인 말고는 어느 누구도 관심 밖의 일이다.

심지어 아카시나무를 싫어하는 환경론자들과 일반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토양을 산성화시킨다』, 『목재로서 쓸모없다』, 『지력을 낮게 하고 땅을 황폐화시킨다』, 『다른 나무를 살수 없게 한다』, 『우리나라 원래의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킨다』, 『외국 수종임으로 배척해야 한다』, 『일제가 우리 민족을 폐망시키기 위해 장려된 나무다』 등등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양봉의 날 행사는 주제는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아카시나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수종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에 우리 양봉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아카시나무연구회 심포지움 행사는 역대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였고 발표논문 마저 내용이 아주 좋아 성공을 거둔 행사인 반면, 우리 양봉의 날 기념

식 행사진행에선 심포지움 전용 훌륭한 시설의 회의장에 예상외의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는 바람에 회의장에 모두 입장하지 못한채 진행됨으로 인하여 행사 진행상 혼잡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 흠이었다. 먼 거리에서 이동 참석한 다수의 회원들의 이날 하루 불편에 겹쳐진 자세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이날 행사에서 아카시나무연구회 회장 임경빈 박사와 부회장 박용구 박사 두분께 감사패

를 증정했다. 또 지난 한해를 통해 업계 기여도가 높은 회원에 대해 농림부장관 표창장 3인, 모범회원에 대한 회장훈 표창패 13점이 수여됐는데 수상자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농림부장관 표창장 수상자
 △경남 거창군 유광순(대한양봉원 대표·거창군분회장) △경북지회 류수남(경북지회장·동남양봉원 대표) △광주시 강청국(청운양봉원 대표) 이상 3명
- ▲모범회원 회장표창패 수상자

품질관리업소 대표·임원·지회장 확대 회의 경쟁력확보위한 아카시아꿀 품질보증 양봉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4월29일 세종호텔 뷔페 식당에서 본협회 품질관리업소 대표들과 본협회 임원·시도지회장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양봉업계 주요 사안인 벌꿀의 품질향상과 회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문제를 다룬데 이어 5월3일 이민출국하는 김재길 전 연구소장을 초청, 석별의 정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봉회관건립추진위 구성〉
 수입개방·정보화 시대를 맞은 현재의 우리 양봉업계 위치는 후진 양봉인들에 희망과 보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중추역할의 기능을 담당할 한국의 양봉센터 마련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전임 임원들의 퇴임과정에서 발의되었고 이어 지난 2월18일 임원·지회장 연석회의에서도 잇달아 진전된 결의를 본 바 있다.

(본보 3월호 참조)이를 위해 이번 품질관리업소 대표들과 자리를 함께한 확대회의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기본 골격을 갖추는데 합의했다.

추진위원회는 ▲고문단=약간명 ▲위원장=정해운 협회장 ▲부위원장단(25인 내외)=협회임원 10인, 판매업소대표 10인, 양봉축협조합장 5인 ▲상임원단(약60인내외)=12개 시·도지회장 12인을 비롯 전직 임원, 품질관리업소 대표 전원 ▲추진위원단(200인 내외)=전국 시·군·구분회장 및 대의원 ▲실무지원반(4인)=총무(1인):협회사무국장, 감사(3인):양봉축협조합장 대표 1인, 판매업자 대표 1인 등으로 구성기로 했다.

따라서 본협 임원과 지회·분회 및 대의원의 추진위원회



사진 위. 제25회 양봉의 날 기념식에서 정해운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아래. 아카시나무 심포지움 행사를 마친후 발표·진행자 일동의 기념사진
 △경기 정인규 △강원 김평국 △경북 박흥규 △경남 남성현·△충북 안병규 △충남 이현복 류재하 △인천 윤문수 △대전 이충우·임현기 △부산 김경영 △전북 한석연 △전남 이수호

구성 윤곽은 이미 정해진 사항이므로 이날 확대회의서 부위원장 장급 판매업소 대표 10인의 추대 문제에 관해 협의하였다. 우선 △유화자연농장 유희백 △(주)강원농원 이창수 △(주)한국양봉진흥 이희철 3대표와 협의하여 오는 6월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회의의 회의를 다시 열고 판매업소 대표 7인의 부위원장을 추가로 추대하기로 하였다.

〈아카시아꿀 품질보증제도〉
 수입개방·WTO체제 속에서 우리 고유의 천연, 청정 식품으로서의 품질관리를 아카시아꿀의 장점을 살려 나간다면 국제 경쟁력에 맞설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봉산물의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품질보증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협회 품질보증품의 위상을 강화해야 하며, 또 시중 시판 벌꿀의 덩핑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품질관리 참여업소들의 상품 고급화를 유도하면서 양봉인의 장인의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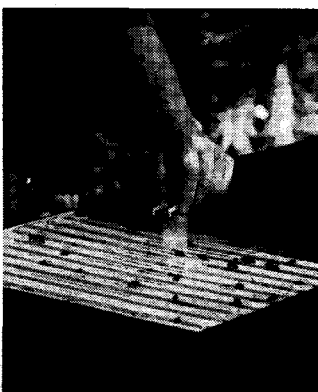
로 무장한 유통환경 조성이 결국은 한국의 양봉업계 발전을 기하는 길이라고 판단되므로 참여업소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아카시아꿀 품질보증에 관해서는 △F/G 1.45 이상을 『아카시아꿀』로 정의하고 △이 기준에 맞는 아카시아꿀에 한해 범용품질보증표와는 다른 별도문양 표시의 품질보증표를 부착하고 △시행시기는 올 7월1일부터. ▲범용 품질보증표와 아카시아꿀 용도의 2중으로 구분되며 △현재 사용 중인 품질보증표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변경, 특수제작한 품질보증표 제작에 원가상승 요인 현재 88원에서 110원(부가세포함)으로 인상하며 △시행시기는 올 7월1일부터 착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품질관리제도 참여업소들은 이러한 기본 관리체계에 의한 참여약정을 다시 체결해야만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품질관리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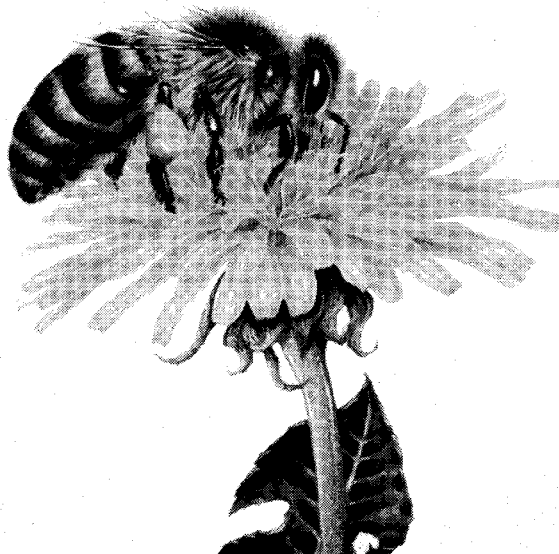
강력하고 편리한 응애전문구제제 바이바를

「바이바를」은 간편한 처리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약효로 모든 응애류를 완벽하게 구제해 줍니다.



1. 「바이바를」은 강력하고 빠르게 응애를 구제합니다.
2. 「바이바를」은 효능이 오래 지속됩니다. 투여후 6주까지도 효능이 지속합니다.
3. 「바이바를」 안전성이 우수하여 꿀벌과 사람에게 안전합니다.

Bayer 
 바이엘코리아(주)



독일 바이엘에서 개발되고 구미 각국에서 애용되는 「바이바를」 스트립이 응애 구제에 새로운 힘을 드립니다.

바이바를

수입원제품
 제조원: 독일 바이엘사(Bayer AG)
 포장: 20 스트립/갑
 구입문의: 일진실업
 ☎(02)923-3470, 927-3983